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7월 19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12장 1-8절

설교제목 :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주일성수에 대한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에 거의 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경우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교회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일성수의 의미를 다시금 정확히 재정립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란 의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했던 의미를 완성한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성수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에 제정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출20:11)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제 7일째 쉼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쉼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과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더불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이심을 온 만물의 주인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시며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의 핵심은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업을 중단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내가 사는 것이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재권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힘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로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한다는 주재권의 고백입니다. 주일 성수에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명기에 가면, 안식일 규례가 발전합니다.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발전합니다.(신5:15) 그러면 왜 안식일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탄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사탄과 죄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2:8)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20:10의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안식이 대상이 남녀노소, 신분고하와 상관없이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그 안식의 대상이 됩니다. 고대근동에서 쉼은 오직 신만 누리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신 자신들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들의 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대근동에서 신과 왕과 자유인만이 누리는 쉼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쉼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신적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출애굽에서 그 동기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물질로 취급받았습니다. 노동하는 물질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소유된 물건입니다. 그들은 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러한 삶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무너진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안식은 나만의 인식이 아니라, 사회적 안식입니다. 특히 약자들의 안식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안식일은 사회 복지적 차원의 선포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정신이 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라**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란 안식일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무엇만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율법에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신23:25)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베어가는 행위입니다. 율법이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무엇을 지켰느냐 아니냐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신앙형태입니다. 성수란 주일이 가진 의미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다시금 해방되는 날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는 날입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의 사슬로 해방되고, 연약한 육신이 해방되고,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의 원천적인 힘, 믿음의 원천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날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은 완성되었지만, 참된 안식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마란 아타'의 존재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주일을 온전히 지켜갈 때,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지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정의 구현하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주재권을 고백하며 마란아타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출애굽기 20:11에 기록된 안식일 제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신명기 5:15에 기록도니 안식일 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구약의 안식일이 갖는 의미 두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5)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주일성수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